



식욕억제제

요약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체질량지수가 매우 높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비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는 보통 4주 이내로 단기간 투여하며, 그 외 식욕억제제는 12주 이내에 체중 감소 정도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할 지를 결정한다. 불면증, 두통,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anorexiant(영어)
食慾抑制劑(한자)

동의어: Anorexiant drugs, Anorectics, Anorectic drugs, Appetite suppressants

유의어·관련어: 비만치료제, 살 빼는 약, 다이어트약

약리작용

식욕억제제는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대부분 오용이나 남용 시 심각한 위해가 생길 수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취급되어 엄격한 관리,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효능·효과

키와 몸무게로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kg/m^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 kg/m^2 이상인 비만 환자 치료에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

종류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욕억제제로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디에틸프로피온(diethylpropion), 마진돌(mazindol), 로카세린(lorcaserin) 등이 있으며,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성분으로는 부프로피온(bupropion) + 날트렉손(naltrexone) 복합 성분이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또는 마진돌 함유 제품은 4주 이내로 단기간 투여하나, 의사의 판단 하에 만족할 만큼 체중이 감소된 경우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 로카세린 또는 부프로피온 + 날트렉손 함유 제품은 12주 이내에 체중이 감소된 정도를 평가하여 투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작용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불면증,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심, 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심계항진(心悸亢進,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빠른 증상)이나 혈압 상승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 식욕억제제는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
- 일부 약물은 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사람에게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들

식욕억제제 외에 비만 치료에 처방되는 약물로는 오르리스타트(orlistat)와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가 있다.

오르리스타트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lipase)를 억제하여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되게 함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킨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투여하며, 식사를 하지 않거나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을 수 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지용성 비타민을 오르리스타트 투여 최소 2시간 후에 보충해 주는 것이 권장된다.

리라글루티드는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1(glucagon like peptide-1, GLP-1)*이라는 물질의 유사체이다. GLP-1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며, 또한 포만감을 유발하고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도 사용된다. 피하주사로만 1일 1회 투여한다.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생약 성분의 비만 치료제(방풍통성산건조엑스, 그린티엑스, 오르소시폰가루 + 그린티분말 복합제 등)들도 있다.

*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1(glucagon like peptide-1, GLP-1): 장 내벽의 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혈액 내의 포도당 수치에 상응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에서 처방되는 비만 치료제 정리

| 분류 | 성분명 | 상품명 예 | 향정신성의약품 여부 |
|-----------|-------------|-------------------|------------|
| 식욕억제제 | 펜터민 | 푸리민 [®] | ○ |
| | 펜디메트라진 | 푸링 [®] | ○ |
| | 디에틸프로피온 | 디피온 [®] | ○ |
| | 마진돌 | 마자놀 [®] | ○ |
| | 로카세린 | 벨빅 [®] | ○ |
| |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 콘트라브 [®] | X |
| 지방흡수 억제제 | 오르리스타트 | 제니칼 [®] | X |
| GLP-1 유사체 | 리라글루티드 | 삭센다펜 [®] | X |